

미즈미즈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주기 기념음악회

ACC 시민오케스트라 초청공연

2024.8.17.(토) 17:00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주최 광주광역시 | 전남대학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김대중대통령광주추모사업회
후원사모추모사업회

전석 초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선착순 좌석 사전 예약 필수

그림 서기문

추모 메시지

‘청년 김대중’을 닮고 싶었습니다. 청년이었던 김대중,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던 김대중을 닮고 싶었습니다. 저도 것처럼 유능한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가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들여다보며 따뜻한 복지의 실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었을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였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드셨고, 저는 그것을 배워 광주를 AI중심도시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늘 국민보다 반보 앞서 걸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눈을 저도 쫓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 민주화를 이뤄낸 광주가 반드시 잘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과 힘껏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에 따라 산업은 키우고 돌봄은 두터이 하는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모음악회를 열어주시고 공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오늘 행사가 열리는 이곳 민주마루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특별강연도 하시고, 전남대학교 명예박사학위도 받으셨던 곳이어서, 추모의 장소로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였던 정치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난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하였던 박애주의자셨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 지금의 한류와 IT강국을 준비하실 만큼 미래를 예견한 통섭적 지식인이셨습니다. 당신의 사상과 철학은 우리 삶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민주마루 앞에 심어놓으신 이팝나무를 보며, 매년 당신의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영면에 드신 지 15년, 오늘도 우리는 당신을 추억합니다.

전남대학교 총장 **정성택**

서거 15주기를 맞이하여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켰습니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길을 밝혔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지만, 당신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리더십과 통찰력이 그립습니다. 평화와 화해, 그리고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행사위원장 **김양현**

프로그램

사회 황정숙

추모영상

- 01**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번호 39, 1번
E. Elgar.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Op.39,
No.1, March in D Major
ACC 시민오케스트라
-
- 02**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협연자
소프라노 나혜숙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라우레타의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G. Puccini / O mio babbino caro from Opera <Gianni Schicchi>
-
- 03** 오 나의 태양 O Sole mio / E.D. Capua
협연자
테너 윤병길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G. Puccini / Nessun Dorma from Opera <Turandot>
-
- 04**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협연자
테너 윤병길
소프라노 나혜숙
G. Verdi / Brindisi from Opera <La Traviata>
-
- 05**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김효근, 목포의 눈물 /
손목인, 환희의 송가 /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중
광주솔리스트앙상블
ACC 시민오케스트라
-
- 06**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마단조 작품번호 95, '신세계로부터',
4악장 열정을 담아 빠르게
ACC 시민오케스트라
A. Dvořák /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From New World', IV. Allegro con fuoco



ACC 시민오케스트라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2016년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약 15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역 생활예술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출연자



김병무 지휘자

- 러시아 국립 그네신음악대학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Diplom)
- 러시아 국립 그네신음악대학 연주 박사(D.M.A) 졸업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현) 클랑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 광주예술고등학교 지휘자
-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 ACC 시민오케스트라 지휘자

단원

지휘자 김병무 외 86명

제1바이올린	박새별 송지운 윤현화 윤종호 정승환 김하은 이혜준 김시환 김용상 황은율
제2바이올린	강 연 양은영 김영빈 김수진 이경미 황수연 김애숙 김은미 나태현 범지영 이춘성 이지은
제3바이올린	김정아 이정희 유근형 김유빈 임근일 문호정
비올라	한인지 이 슬 안소연 김유빈 김경숙 안혜정
첼로	박경영 김 관 오점숙 김하영 박미희 노은영 김선옥 임오례 장혜영 오지희 유순아
콘트라베이스	이정은 류수경 최선의
플루트	손우영 최유란 변예은 기영미 이주은 이주혜
오보에	김주영 류혜인 이혜리
클라리넷	김상민 박규형 김 현 이은영 김세현 이은미 장영미
바순	조덕환 인해비 이지형
호른	김영민 김아람 이정현 이윤호 장주연 김민규
트럼펫	정성진 강철민 하민중 조금배 김가람 추선호
트럼본	양지원 서주연
튜바	조재형
팀파니	오미정 홍지수 이정빈
피아노	김한나

솔리스트



나혜숙 소프라노

- 조선대학교 사범대 음악교육과 졸업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수료
- 이태리 S.Cecilia 국립음악원 졸업
- 현)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출강



윤병길 테너

- 경희대학교 음악과 성악과 졸업
- 이태리 토레프란카 국립음악원 디플로마
- 국립오페라단 안드레아쉴리에 주역 및 다수 오페라 주역
- 현)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솔리스트앙상블



베이스 임해철 외 10명

소프라노 이경은 노선진 박선경 박수연 | 메조소프라노 임선아 신은정
테너 고규남 나영오 | 베이스 임해철 이하석 | 피아노 박지현

아버지합창단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들이 1998년에 아버지합창단을 창단 하여 26년째 활동하고 있다.
30여명의 단원들은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30~70대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휘자 윤원중 외 40여명

테너1 곽준봉 김남호 안태홍 이학민 정영성 조성식 허 승
테너2 나재호 박영석 송종철 오동준 오영근 이용희 정성오 추영식 하상규
바리톤 김일성 김평식 안 용 유영수 이승환 이주원 차경원 채후성 홍준표
베이스 강장원 문제철 박요한 신도수 이태웅 이한용 정문성
조재민 최기영 한세준 황재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마지막 일기에서 (2009년)

“5·18에서 우리가 보았던 정신은 인권 정신이었습니다.
둘째는 비폭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셋째는 성숙한 시민정신이었습니다.
넷째는 평화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주 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자랑인 것입니다.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기 때문입니다.”

5·18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연설 중 발제 (2000년)

“세계 평화야말로 온 인류가 걸어가야 할
가장 숭고한 목표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지상과제입니다. (……)
한반도 평화는 7,000만 민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21세기에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원동력을 ‘대화와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협력의 실천을 통해서 인류는
빈곤 문제를 위시한 21세기의 새로운 문제에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벨평화상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발표 중 (2001년)